

Library News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막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제12호 2007년 12월 도서관 소식 (반년간) DONGSEO UNIVERSITY LIBRARY NEWS 발행인 : 박동순 / 발행처 : 민석도서관 T. 051-320-2065

민석도서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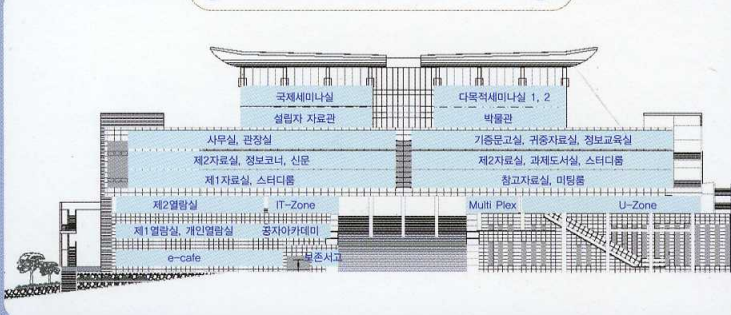
2007년 9월 12일 연면적 14,345.04㎡ (4,339평)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를 자랑하는 민석도서관이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2년여의 공사 끝에 개관을 하였다.

1992년 개교와 더불어 그 역사를 시작한 동서대학교 도서관은 그동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며 지식정보센터로서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를 원할히 지원하여 왔다.

1995년 도서관전산화 토털시스템을 구축하고, Audio & Visual Library를 개관하여 대학도서관의 모범이 되었고, 2001년 학술정보서비스와 교육, 문화 휴식공간 기능을 융합한 에듀테인먼트 개념의 E-Library를 개관하여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제시하여 왔다.

2007년 승고한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 민석 장성만 박사의 아호를 빌려 명명된 민석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학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와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들의 상호협력의 중심기관으로 21세기 세계화를 지향하는 종합 학술정보센터로서 그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되었다.

민석도서관 시설 안내



층	내 용
6	국제세미나실, 다목적 세미나실
5	설립자 자료관, 박물관
4	관장실, 사무실, 정보교육실, 기증문고실, 귀중자료실
3	제2자료실(500-900류), 주제 코너, 과제도서실, 스타디움
2	제1자료실(000-400류), 참고자료실, 스타디움, 미팅룸
1	IT-Zone, U-Zone, Multiplex, Copy Services 제1열람실, 무인반납기, 좌석배정기
지하1층	제2열람실, 개인열람실, 공자이카데미
지하2층	E-cafe, 보존서고

민석도서관 살펴보기

1) 도서관 서비스 확대

① 도서관 대출서비스 확대

	이용대상	대출 책수	대출 기간
학 생	학부생	5 권	14일
	졸업생	5 권	14일
	대학원생	7 권	14일
교직원	전임강사 이상 교수	20권	90일
	직원, 조교, 시간강사	7 권	14일

② 24시간 자동반납 서비스

제1열람실에 설치된 무인 반납기를 통해 공휴일 없이 언제나 반납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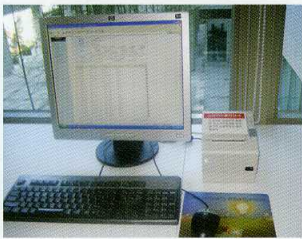
③ 열람실 좌석 배정 서비스

- 배정시간 : 1회 최대 3시간(연장 5회 가능)
- 배정가능 열람실 : U-Zone, 제1, 2열람실

④ 특별열람증 발급

부산거주 28세 이상의 지역주민 및 우리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소장위치출력서비스



각층 검색대에서 검색한 자료의 소장 위치 정보를 프린터할 수 있다.

⑥ 전자저널 서비스의 확대

- 민석도서관에서는 교육내실화를 실현하고 교수 및 학생들에게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외 웹DB 및 전자저널의 서비스를 확대 하였다.
- 기존 구독 : IEL(IEEE/IET Electronic Library), Science Direct, ASE(academic Search Elite), Taylor & Francis, Source OECD, KISS 국내학회지
- 신규 구독
 - ※ SpringerLink : 915종의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Medicine
 - ※ ACM Portal : 컴퓨터공학 관련 분야로서 Journal & Magazines(14종), Transactions(21종), Conference, Proceedings(213종), Newsletter(53종)
 - ※ Nature : 주제분야는 생물공학, 신약개발 및 약학, 화학, 암, 임상의학, 치과학, 지구과학, 생물 및 생태학, 유전학 및 발생학, 면역학, 의학연구, 세포분자생물학, 신경 과학, 물리학 및 재료과학으로서 Nature Medicine을 포함하여 제공(2종)
 - ※ Science : 과학 관련 전반(생명과학, 자연과학, 경제, 교육등) Science Online 및 뉴스레터를 제공 (1종)

⑦ dCollection 호스팅 참여

- dCollection이란 “Digital Collection”의 줄임말로 대학생산 학술정보 수집, 관리,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주관하며 대학 생산 학술연구 정보의 유통을 대학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대학 내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핵심 주체로 대학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시키며, 대학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의 전자도서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2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 학술정보서비스 강화



① 설립자 자료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동서대학교 교사자료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써 2008년 3월 개관 예정

② 과제도서실

매학기 개설되는 강의에 필요한 주교재, 부교재, 참고교재 등을 중점으로 3층 제 2 자료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

③ 주제코너

신착도서, 추천도서, 작가와의 만남, 수험 및 취업 자료만을 특성화

④ 디자인특성화코너

디자인 주제 자료만을 3층 제2자료실의 일정공간에 집중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

⑤ 공자아카데미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우수한 학습조건을 제공하는 자료실로 3천여권의 도서와 각종 자료를 구비



3) 도서관 시설 확충

① 국제세미나실

교내의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간

② 다목적세미나실

분임토의, 리셉션, 전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2실로 구성된 세미나실

③ Multiplex

최첨단 영상장비와 최고급 오디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영화상영, 음악감상,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에듀테인먼트 도서관을 실현

④ Study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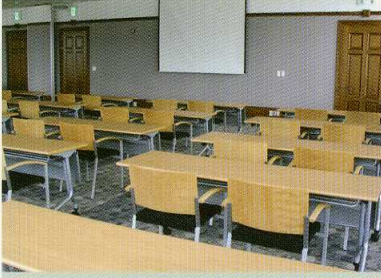
그룹 활동을 위한 스터디룸 13실과 각종 미팅과 토론을 위한 미팅룸 5실을 마련

⑤ Copy Services

IT-Zone과 참고자료실에 복사공간을 마련하여 자료의 스캔, 복사, 출력이 가능하도록 배치

⑥ E-cafe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전 개최

민석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많은 이용자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도서관 모습과 문화를 알리고 정보와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행사 내용]

가. 일 정 : 2007. 10. 1(월) ~ 27(토)

나. 장 소 :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1층

다. 전시품 : 세계 유명 도서관 사진 약 40여점(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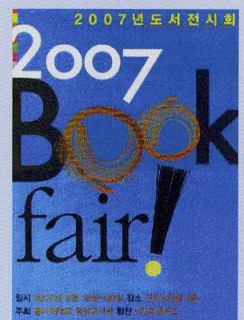
라. 슬라이드 영상자료(본교 도서관 자체 제작)



외국도서 전시회 개최

민석도서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 9월 18일(화)부터 20일(목) 3일간 외국도서전시회를 민석도서관 1층 IT-Zone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서 포인트제를 연계하여 학부와 개별 교수 단위로 필요 외국자료를 도서관을 통해 구입하는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민석도서관 [부산다운 건축물, 2개 부문 은상 수상]



'2007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전에서 디자인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우리대학 민석도서관이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해당 건축물에는 부산시장 표창과 기념동판이 주어졌으며, 수상작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14일 까지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전시되었다

[우수 디자인 (일반)]

- 금상 : 대연동 남구청사
- 은상 : 동서대 민석도서관
- 동상 : 해운대구 우동 디자인센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 지역협력시설

[야간경관조명]

- 금상 : 없음
- 은상 : 동서대 민석도서관
- 동상 : 수영구 광안동 아쿠아펠리스(호텔)



제 21회 작가와의 만남

제 21회 작가와의 만남은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이란 제목으로 자기계발 전문 커뮤니티 백기락님을 모시고, 2007년 10월 25일, 오후 3시 민석도서관 정보교육실에서 성황리에 가졌다.

작가 소개

[소개] 작가 백기락은 크레벤과 크레벤아카데미 회장으로 패트리딩 Master, 석세스 플래닝 Master, CMOE LIFE coaching F/T로 활동하고 있다. 크레벤(www.creven.org)은 성공인맥구축과 비즈니스네트워크 형성,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기계발 전문 커뮤니티이다.

[주요저서] 『석세스 플래닝』, 『내 이름을 경매에 붙여라』, 『Goals & planning』, 『패트리딩-실용독서의 뉴패러다임』, 『목표달성을 위한 석세스 플래닝』 등이 있다.



독서 토론회

민석도서관에서는 교육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독서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표절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성 2팀, 반대 2팀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하고, 방청하는 학생들과 서로간에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일 시] 2007년 11월 29일(목) 오후 3시
 [장 소]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 세미나실
 [토론방식] MBC 100분토론 형식

- 진행 1명, 3명씩 4개팀 (찬성 2팀, 반대 2팀)
- 팀별로 10분 이내 발표 후 토론, 객석이 참여하는 토론
- 선정된 도서 : 패러디와 문화
- 한양대학교 출판부, 김영순외 공저, 2005년



도서관 논문

[도서관 스타디움의 활성화]

스타디움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학습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구 도서관(중앙도서관)에서의 스타디움은 4, 5, 6층에 각 1실씩 3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실은 1개월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 할 수 있었기에 효율성이 떨어졌고, 컴퓨터를 통한 그룹프로젝트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스타디움 이용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민석 도서관에서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 스타디움과 컴퓨팅 환경을 개선한 기자재 스타디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그룹프로젝트 및 그룹 학습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로써 민석도서관은 개인과 그룹의 이원화된 이용자 학습공간을 확보하여 질 높은 이용자 서비스를 실현하게 되었다.

민석 도서관 자율 스타디움은 2층에 7실, 3층에 4실 모두 11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기자재 스타디움은 2층에 4실, 3층에 3실 모두 7실이 있으며, 신청 후 이용을 할 수 있다. 기자재 스타디움의 신청은 이용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도서관 홈페이지, "스타디움예약신청"에 구현하였으며, 현재 스타디움의 이용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예약신청 후 스타디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1층 U-Zone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좌석관리시스템에서 신청자가 학생증을 체크하여 예약증을 발급 받아야하며, 발급 후 데스크에 학생증을 맡기고 이용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예약 시간 시작후 10분내에 예약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문의 : 열람관리팀 김진호 (kimjingho@dongseo.ac.kr)

[민석도서관 과제도서관의 운영방향]

1. 민석도서관 과제도서관 현황

- 서 가 : 6단2연서가 36개 •좌석 수 : 20석 (4인용 2개 / 원탁테이블3개)
- 기기 및 장비 : PC 1대 / 프린터기 1대 / 칼라 프린터서비스지원 및 인터넷정보검색지원
- 과제도서 총 보유 장서현황 : 총 1,261권

2. 과제도서관의 개념 : 과제도서관 함은 'Reserve Collection' 또는 'Reserved Books'를 의역한 말로 지정도서 또는 별치도서, 유보도서, 과제도서관이라는 용어에도 쓰여지고 있다. 과제도서관은 매학기 마다 개설되는 강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리포트작성 및 과제 참고용으로 필독하는 자료를 각 학부 교수로부터 미리 지정받아 별도의 실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열람하게 하는 자료를 말한다. 과제도서관은 주제별로 각 2권씩 과제도서관에 배가되며, 나머지 권수는 각 자료실에 배가된다.

3. 과제도서관의 목적 : 과제도서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수들의 수업진행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과 더불어 전공과목연구, 교과과정에 필수적인 도서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터전과 연구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과제도서관의 선정은 수업진행만이 아니라 그 대학의 교육방향 및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4. 과제도서관 운영방법 : 과제도서관은 매학기 주교재, 부교재, 참고교재를 확인하고 구입하여 주교재만을 비치하며 주교재 중 이용수와 목적에 따라 추가로 도서를 비치한다.

5. 과제도서관 운영의 의의 : 우리대학교도서관에서도 개관과 더불어 과제도서관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자료실에 비치하여 각 학년 학기별 과제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장기간 같은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PC를 사용하여 각종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도서관에 교수들의 각종프로젝트와 문제에 대한 해답지 및 주석집을 비치하는 것 등은 과제도서관 활성화와 방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들의 신중한 도서선택 및 적극적인 관심과 사서들의 질적인 참고봉사서비스가 어울려 진다면 과제도서관의 활성화는 곧 교과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우리 대학의 정책과 방향목표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문의 : 학술정보관리팀 안재근(ajg@dongseo.ac.kr)

이 한권의 책 | 제인 오스틴의 엘리자베스



강 옥 선 | 동서대 교수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이 <오만과 편견 : Pride and Prejudice>에서 창조해낸 인물, 엘리자베스는 내가 처녀시절에 늘 꿈꾸었던 여성상이다. 문학소녀시절부터 나는 재기발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간직한 엘리자베스가 어찌하면 제인 오스틴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면서 글쓰기에 전념하는 여성에 대한 한없는 동경을 품었다. 요즘같이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시즌이 되면, 다시금 오래된 상념에 빠져들게 된다. 엘리자베스가 다이스의 결혼생활을 상상하면서, 소설의 제 이편을 나름대로 그려보는 것이다. 아쉽게도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두 사람의 연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 이후의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의 상상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중산계급에 속한 평범한 베넷 가문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 그녀는 수수한 용모의 주인공답게 내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영국의 19세기 초반, 아직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엘리자베스는 집안에서 독서와 파티를 즐기는 혼기의 처녀로 등장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늘 거침없이 표현하는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적인 인물이다. 여성의 공교육이 일반화되고 전문직을 선호하는 21세기 패러다임에 비추어보면 엘리자베스가 추구한 자아정체성은 여성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 성숙이라는 진솔한 가치를 전해준다.

사실 오랫동안 정치와 역사는 여성의 영역이 아니었다. 글쓰기는 더욱 더 여성의 몫이 아니었다. 여성에게 침묵이 강요되고 성적 억압이 당연시되었던 사회에서 오스틴은 오히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1800년 초반 아직 여성에게 재산권과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규범화된 영국사회에서 그녀는 자신의 소설에서 개성이 있는 여성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여성의 생각과 행위를 재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어찌하면 오스틴은 당대로서는 필수적이었던 결혼제도에 글쓰기를 택하였는지도 모른다. 물론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을 집필하던 무렵 선배작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여성 권리 옹호론(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을 1792년 출판하였다. 선배작가의 여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오스틴에게 여성의 입지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비추었다. 비록 오스틴과 울스턴크래프트의 관계가 아니라도 여성작가와 독자와의 교류도 영감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엘리엇(T. S. Eliot)이 1920년 이미 <전통과 개인의 재능>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한 작가의 상상력은 선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스틴과 엘리자베스의 삶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

로 나와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특히 여성 작가의 작품세계는 이미 그 자체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어느 순간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200년 전 오스틴이 그려낸 엘리자베스와 오만한 다이스의 사랑 이야기는 영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게 하지만, 결국 자신의 발레테 현실 속의 나와 나의 두 딸과 이웃의 현실을 주시하게 하는 상상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소설 <오만과 편견>에서 개성이 강한 엘리자베스와 오만한 다이스의 대화는 소설 전체에서 가장 재미있는 언어적 표현이다. 편견이 강한 엘리자베스는 신분이 높은 다이스가 청혼을 하자, "상대방이 고백한 애정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당신의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다. 당연히 "예스"를 기대하는 다이스의 오만함에 저항하여 독자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엘리자베스의 대담한 태도는, 바로 여성도 가문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여성권리 선언문'이다. 엘리자베스의 긍정적 태도는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이 자기 집 앞에 몰려든 기자에게 한 말, "나는 여성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써 글을 쓰고 있습니다"에서 재확인된다. 레싱의 독자적인 태도는 200년의 시간적 간극을 뛰어넘어, 오스틴의 목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건지하였기에, 마침내 다이스와의 동등한 사랑을 성취해내는 쾌활한 엘리자베스는 어찌보면 순종적인 언니 제인보다는 당연히 작가 오스틴의 자화상에 더 가깝게 여겨진다. 감성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확한 자기표현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오스틴이 창조해낸 여성 주인공의 특성이 되고 있다.

오스틴이 창조해낸 엘리자베스는 일터에서 흔히 만나는 독자적이고 자긍심을 지닌 쾌활한 아가씨이며, 출신계급의 한계를 무시하는 등, 사회적 관습에서 한참 벗어난 진보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급진적 성향의 여성 주인공은 오늘날 평범한 현대여성의 이미지이다. 엘리자베스와 다이스의 갈등과 화해는 현대여성이 추구하는 낭만적이고 동등한 사랑의 방식에 대한 하나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당대의 독자들을 뛰어넘어 후세의 독자에게도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 하는 선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독자들이 인생행로에서 때로 길을 잃고 헤매면, 작품 속에서 만났던 등장인물들의 고뇌와 갈등은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오래 전 나침반을 가슴에서 꺼내어 삶이 방황타를 다시 조종하고 맞추어 보는 것이다. 그 까닭으로 우리는 매일 절망하지만 중도 하지하지 않고 마치 값싼 바닷길의 작은 조각에 하나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존재는 나만의 것이기 보다는 역사 속에서 창조된 또 하나의 새로운 인물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제6회 민석도서관 독후감공모

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서비스 확대,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독서 능력 향상과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도서관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2007년 민석도서관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독후감 공모전을 가진다.

[민석도서관 추천도서 독후감 공모 요강]

- 독후감 대상작 : 민석도서관 추천도서 중 1편
- 제출처 :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1층
- 시상 : 우수작 1편, 가작 3편, 장려 5편
- 제출마감 : 2007년 11월 23일(금)
- 발표 : 2007년 12월 7일(금) 예정

[2007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추천도서 목록]

서명	저자	출판사
긍정의 힘(목상, 성경공부, 실천, 성공편)	조엘 오스틴	두란노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다치바나 다카시	청어람미디어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	씨잇을 뿌리는 사람
뜻밖의 한국사	김경훈	오늘의 책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청림출판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말	필립 제스터필드	국민
오늘의 세계적 가치	브라이너 파머	문예
용기 (DO-IT-NOW 프로젝트)	유영만	위즈덤하우스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엘유문화사
질문의 7가지 힘	도로시 리즈	더난출판사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일조각
츨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가드니 로베르	시대의 창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	21세기북스
화 (anger)	틱낫한	명진출판
국화와 칼	루쓰 베네딕트	엘유문화사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북프렌즈
꿈의 해석	프로이트	열린책들
미디어의 이해	마살 맥루한	커뮤니케이션북스
소유나 존재	냐프롬	까치
카인의 후예	황순원	문학과지성사
파우스트	괴테	문학동네
내인생을 바꾼 한권의 책	잭 캔필드	리더스북
그리스로마신화	이윤기	웅진닷컴
광장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푸른나무
간디자서전	함석헌	한길사
장자	장자	현암사
돌베개	장준하	세계사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인간의 본질에 관한 7가지 이론	R. 스티븐슨	종로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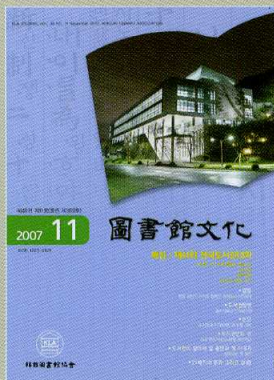
• 문의 : 학술정보관리팀 박광중 (pkj@dongseo.ac.kr)

민석도서관을 방문해 주신 분들

10월 1일	부산디자인센터 직원 2명 공자아카데미관련 일본대학 관련자 방문 4명
10월 2일	일본 벵부대학 총장 외 5명
10월 5일	부산정보고등학교 교사 외 학생 29명
10월 10일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직원 1명 신라대학교 도서관 직원 1명
10월 11일	경상대학교 도서관 직원 2명 미디어창작과 학생 5명
10월 12일	부산국제영화제관련 외국기자 4명
10월 17일	한국폴리텍7대학 직원 2명 사상구청 직원 2명
10월 22일	장전노인문화대학 70명
10월 23일	독일 Tomas Neese 교수
10월 24일	부산교육정보원 개발도상국정보화연수단 30명 베트남 하노이사범대학 총장 외 15명 신라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 4명
10월 25일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 뎀 띠엔 반
11월 1일	YWCA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12명
11월 2일	세계한인무역협회 고석화 회장
11월 3일	주학초등학교 6학년 42명
11월 5일	한일대학생 공동세미나 참석 학생 및 공로명 석좌교수
11월 6일	한일대학생 세미나 참석 학생 50명 동양대학교 직원 4명
11월 8일	부산경찰청장 외 6명
11월 9일	독일 베를린공대 교수 2명 부산여전 문헌정보과 학생 3명
11월 14일	동아일보사장
11월 16일	신남초등학교 교사 외 23명 광주중앙도서관 사서 2명
11월 22일	부산대학교 도서관 3명 광주여자대학교 4명 마산도서관 9명

※ 문의 : 열람관리팀 안혜진 (ahj@dongseo.ac.kr)

도서관 권위지 “월간 도서관 문화”에 수록된 민석도서관



민석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하는 도서관 권위지 “월간 도서관 문화” 11월호에서 극찬을 받았다.

도서관 문화는 민석도서관 전경사진을 타이틀 화보로 다루며, “아름다운 도서관 건물과 편안함을 주는 시설, 특성화된 풍부하고 질 높은 전문자료, 실력있고 친절함 전문사서가 반겨주는 도서관의 3대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7면 기사를 실어 우리 도서관을 소개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대학 도서관에 앞으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견학 및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학술정보관리팀 나기성 (gee109@dongseo.ac.kr)